

2020년 4월 국내·외 위성 관련 산업동향

< 목 차 >

I . 위성 관련 소식

1. 한국 최초 軍 전용 통신위성 7월에 쏜다

(원문) <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2004011586023530>

2. 산림위성으로 산림정보혁신 르네상스 4.0 연다

(원문) <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Z1BXI41ER>

3. 항우연, 소형발사체 개발 도전

(원문) <https://www.etnews.com/20200406000129>

4. 中, 내달 55번째 항법위성 발사...GPS 베이더우 시스템 구축 완료

(원문) 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00406_0000984523&cID=10101&pID=10100

II . 위성 관련 보도자료

1. 첨단 우주 부품 국산화 통해 우주산업 육성 가속화

II. 보도자료

1 첨단 우주 부품 국산화 통해 우주산업 육성 가속화

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, '20.4.28.

□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예타 통과, '21년부터 10년간 2,115억 투자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, 이하 '과기정통부')는 발사체, 위성에 적용되는 첨단 우주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'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'을 신설한다고 밝혔음
 - '21년부터 '30년까지 10년간 총 2,1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인 동 사업은 4월 27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시행이 확정되었음
-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의 우주개발을 통해 발사체, 위성 등 체계사업(System engineering)의 설계, 조립 능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나,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음
 - 다목적실용위성 3호('12년 발사)의 경우 위성체 부품 국산화율이 64%였으나, 현재 개발 중인 6호의 경우에도 65%에 불과한 상황임
 - 우주 부품의 지속적인 해외 의존은 체계사업의 사업비 증가 및 사업 기간 연장의 원인이 되고 있음
- 이에 따라, 과기정통부는 우주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,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기획하였음
 - 지원대상 기술은 우주개발 로드맵 2.0('18.3월)상 235개 기술 중 전략성, 시급성, 경제성을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별하였으며,
 - 선별된 기술을 바탕으로 발사체 분야 3개 과제(580억 원), 위성 분야 13개 과제(1,375억 원)로 세부과제를 구성하였음
- 동 사업은 개발된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 실제 체계사업에 적용하고, 우주기업의 역량 향상을 통해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

- 각 세부과제별로 TRL 3~5단계 기술을 7단계(QM, 인증모델)까지 개발하고, 체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관리팀이 기술컨설팅을 수행하여 개발된 결과물이 체계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
- 세부과제별로 산·학·연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팀을 구성하고, 전문성을 갖춘 사업단에서 사업을 관리하여 기술적 연계 및 보완을 지원함
- 특히, 각각의 설계과제에 반드시 기업이 1개 이상 참여하여 설계 결과물의 기업 단독 또는 공동 소유권 부여함으로써, 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
- 아울러,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 지침 신설 등을 통해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이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한 경우, 체계사업 적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임
-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총 3,996억 원의 수입대체와 세부과제별 97%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할 것을 목표하고 있음
- 한편,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(원장 임철호, 이하 ‘항우연’)은 우주기업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금 감면 및 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함
-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 결과물을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 기업의 매칭 연구비를 전액 면제하고, 기업 인건비 미지급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을 개정할 계획임
- 항우연은 올해 12월까지 중소·중견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와 시험 검사 수수료를 각각 25%와 50%씩 감면하고, 납품 계약 이행 지체 시 기업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일부 감면 또는 유예할 계획임
-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“일본의 수출규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흔들리지 않는 반도체 강국이 되려면, 소재, 부품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. 마찬가지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 부품의 자체 개발 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” 며,
- “이번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을 통해 산업체의 우주개발 역량을 높이고, 개발된 부품이 체계사업에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 이라고 밝혔음